

보건/의료 디아코니아 세미나

-의료선교 및 교회의 보건의료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펀드와 관련된 내용-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9:30-12:00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의원회관

주최 | 2016디아코니아코리아 조직위원회

인사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16)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의 “보건/의료영역”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유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에 대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리는 상태라고 생물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에 영적인 요인까지 포함하여 생심리사회영적(bio-psycho-socio-spiritual)한 다각적 관점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창기 역사에서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의료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역사를 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많은 의료선교와 봉사의 노력이 국내외 많은 곳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건의료로 통한 선교와 봉사의 경험이 축적된 지금,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교회의 보건의료 봉사의 모델에 대해 협력하여 고민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볼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 1에서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김병순 원장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박영태 교수님, 박에스더 교수님, 세션 2 좌장을 맡아주신 김명훈 박사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정종훈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송호석 부장님, 여재훈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사랑과,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의료선교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한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신보건·보건복지 전공)

일정표

1.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09:30-12:00
2.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의원회관
3. 행사 일정

시간	순서	내용
	세션1 좌장	송인한 교수(연세대학교)
09:30~10:10	주제발표 1	“의료선교 및 교회의 보건의료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김병순 원장(온누리교회 CMN대표장로, 분당 순병원)
	토론 1	박영태 교수(고려대학교)
10:10~10:40	토론 2	“의료선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 박에스더 교수(대구대학교)
10:40~10:50		휴식
	세션2 좌장	김명훈 박사(강남세브란스 사회사업팀)
10:50~11:30	주제발표 2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 펀드와 관련된 내용”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토론 1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토론문” - 송효석 부장(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11:30~12:00	토론 2	“노숙인 진료소에서 바라본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 여재훈 신부(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목차

주제발표 1	
“의료선교 및 교회의 보건의료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김병순 원장(온누리교회 CMN대표장로, 분당 순병원)	1
토론 1	
박영태 교수(고려대학교)	9
토론 2	
“의료선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 박에스더 교수(대구대학교)	11
주제발표 2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 펀드와 관련된 내용”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13
토론 1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토론문” - 송효석 부장(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29
토론 2	
“노숙인 진료소에서 바라본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 여재훈 신부(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33

의료선교 및 교회의 보건의료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김병순(온누리교회 CMN대표장로, 분당 순병원)

목 차

- I. 기관소개
 1. 현황
 2. 사역내용
 3. 형성과정
 4. CMN전략
 5. 온누리교회 재난구호
- II. 융합선교
 1. 의료아웃리치
 2. 긴급구호

CMN(Cristian Medical Network)의 비전은 “세상에 평화를 심는 교회” 라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에 기초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평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철학에 기초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왔다.

온누리의료팀은 1989년 발족한 이후 2005년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님을 때 온누리교회는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대규모 복구지원 봉사를 펼쳤으며 2006년 강원도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사태 때에는 평창군 거문리를 중심으로 연인원 2300여명이 투입되어 복구 지원에 앞장섰다. 이를 계기로 대사회봉사가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한 교회는 2006년 CMN으로 개명 후 현재 7개팀 약 300명의 팀원들이 겸손히 각자 은사에 맞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 국내 농어촌 오지교회, 이주민, 탈북자, 노숙자를 위한 아웃리치가 일일히 거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2기 온누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야할 많은 사역중에 선교와 공회, 복음전도와 교육에 CMN이 이천선교본부, TIM, 온누리 M 센터, 더멋진세상, CGN, BEE, 대학청년부, 차세대, 아버지 학교 등 많은 교회 내 단체 및 NGO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융합선교라는 큰 그림을 보여 주셨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Acts29' 비전을 가진 교회며, Acts29비전의 핵심은 선교하는 교회다. Acts29 비전을 더욱 풍성히 맺기 위한 많은 선교적 활동 중에 의료사역을 통한 복음전도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19세기 말, 한국교회 선교초기부터 많은 서구 의료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적 봉사와 섬김이 있었고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선교를 통해 한국사회는 엄청난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많은 실질적인 도움과 부흥을 경험했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보건과 의료의 낙후되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민족들과 나라들이 아직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들로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I. 기관 소개

1. 현황

7개의 현장사역팀, 약무팀, 지원팀, 및 선교사케어팀 이 국내외 사역을 하고 있음

2. 사역 내용

- 1) 정기의료사역 - 외국인근로자, 조선족 근로자, 농어촌교회, 시설/복지관, 노숙자진료, 탈북자
- 2) 해외아웃리치 - 중국, 인도차이나반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 3) 기관사역 - 안산 및 김포M센터, 하나공동체, 기지촌여성, 더멋진세상(NGO)
- 4) 비정기사역 - OMC지원, 각종 행사지원, 선교사케어

3. 형성과정

- 1) 1985년 온누리교회 개척 이후 2005년 5개 의료선교팀이 자발적으로 형성 됨
- 2) 2005년 동남아시아 쓰나미 긴급구호
2006년 강원도 대규모 수해 긴급구호
α교회적으로 대 사회봉사활동 중요성 인식
- 3) 2006년 의료팀 통합기구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출범
- 4) 2015년 7개의 현장사역팀, 약무팀, 지원팀, 및 선교사케어팀이 활동

4. CMN 전략

- 1) 선교대상의 다양화
-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장애인, 노숙자, 농어촌
- 2) 선교의 선택과 집중
- 블레싱캄보디아(2012) , 블레싱사하라(2013)

3) CMN멤버들의 영적 양육

- 예배와 양육/ 세미나/ 리트릿

4) 내부시스템의 체계화

- 약무, 의료, 치과장비, 간호팀의 체계적 운영
- 이미용, 수기치료, 발마사지 스쿨운영 봉사자 확대

5) 대외 네트워크 강화

-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와의 연합

5. 온누리교회 재난구호

1) 2005년 동남아 쓰나미 사태

- 스리랑카 중심으로 긴급 구호, 복구 지원

2) 2006년 강원도 대규모 수해 사태

- 연 인원 2,300명 투입 긴급 복구 지원

3) 2007~8년 태안 원유 유출 사태

- 약 한 달간 4,544명 투입 긴급 복구 지원

4) 2010년 아이티 지진 사태

- CMN 긴급의료구호팀 파견
- 장기 재건 프로젝트 착수(선교사파견)

5) 2011년 일본 대규모 지진/쓰나미 사태

- 긴급구호팀 파견(대학청년부)

II. 융합 선교

더멋진세상과의 융합 선교

1. 의료 아웃리치

더멋진세상이 전략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열악한 지역을 찾아가 의료사 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한 의료봉사활동이 CMN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지난 2013년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과 네팔 지진피해현장, 그리고 세네갈 본 나바 마을에 이르기까지 CMN 의료선교팀은 더멋진세상과 함께 전략적으로 전방개척지역을 기도로 돌파하며 헌신적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필리핀 비농안안 섬은 이제 더멋진마을로서 자립하게 되었고,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도 보건지소와 조산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네팔 지진피해현장에서도 헌신적인 의료활동으로 상처입은 주민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1)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가) 2014년 8월 25일

- 보건지소 준공식 : 르완다 군병원과 이동진료를 실시해오던 응호망과 지역에 새로 건축한 무니기냐 보건지소(Munyiginya Health Post)의 문을 여는 준공식 행사를 실시하고, 군병원 이동진료 및 보건세미나를 실시했다.
- 의료 세미나 실시 : 현지 주민들 대상, 400여명 참석. 모자보건(노정숙, 산부인과), 구강위생(김문갑, 치과),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및 질병 예방(윤상엽, 외과)에 관한 강의. 주민들이 에볼라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배웠다. 또한 구강위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주민들에게 칫솔과 치약을 나눠주고 양치질을 가르쳤다. 모두들 즐겁게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성들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지식 없이 지내오던 차에 모자보건지식을 통해 새롭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 산부 인과 진료 :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서 직접 주민들을 진료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통으로 시달리던 여인이 뱃속에 사산아를 품고 있었음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 참석 : CMN 의료진 3명 + 일반 봉사 14명

나) 2015년 8월 - 아웃리치

- 조산소 준공식
- 3일 동안 의료팀들이 활동
- 기간 : 2015. 8.15-8.19
- 인원 : 28명 (의사, 간호사, 약사, 일반 자원봉사)
- 진료 : 1,478명 (수술 7건)
- 의의 : 산악지역에 위치한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이 의료사역을 펼침으로써 간단한 질병도 병원을 가지 않고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의사의 정밀 진단을 통해 치료되거나 큰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게 되었음. 응호망과 주민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줌으로써 응호망과에 위치한 교회도 덩달아 부흥하고 있다고 함. 더멋진세상이 기독교 단체이고, 아웃리치 오는 사람들도 크리스천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싶다고 말하며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다.

2) 세네갈 본나바 마을

가) 2016년 8월 - 본나바 마을

무슬림 지역인 본나바 마을에 3일동안 의료캠프가 설치되어 1,944명의 주민들이 진찰을 받았다. 이번 의료팀은 산부인과, 소아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등 13명의 의료진이 참여하여 전체 29명의 아웃리치팀이 꾸려졌다.

본나바 마을과 냐그 보건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을 진료하였고,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섬긴 의료팀의 헌신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한국팀 최고라는 칭찬을 하였다.

CMN 세네갈팀_진료인원통계

8/15

치과 70

소아과 105+127=232

내과 58+0=58산부인과 11+52=59

정형외과 85

성형외과 37 수술1

비뇨기과 48

*총:590

8/16

**학교검진 83+131=214(차트기준)

치과 70

소아과 0+134=134

내과 60+0=60

산부인과 85+63=136

정형외과 48

성형외과 35 수술1

비뇨기과 107

*총:591

8/17

치과 42(선교사2명포함)

소아과 149
 내과 246+82=328
 산부인과 99
 정형외과 6+45=51
 성형외과20(냐그)+8(본나바),수술1=29
 비뇨기과 28+37=65
 *총:763

전체진료인원:1944명, 2158명(학교검진포함)

- 의의 : 더뎡진세상이 전략적으로 품고 있는 본나바 마을은 무슬림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복음전파가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심어지도록 꾸준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들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될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본나바 마을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영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긴급구호

자연 재해가 발행한 지역에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여

1)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3년 12월 CMN 의료팀 25명 필리핀 중부 파나이 섬 태풍 피해지역 의료활동

의료팀 : 10 명 (CMN 소속)

- 구호팀 : 6 명 (청년부원)

2) 네팔 긴급 구호활동

- 일정 : 2015, 5.4 - 5.15

- 인원 : 25명 (의료팀7명, 구호팀 12명, 선교사4명, 현지인2)

- 지역 : 고르카 군 지역 지진 피해 심한 4개 지역

a. 가쿠(Gankhu) 지역 : 800 가구(가옥 균열 및 붕괴 80% 이상)

b. 나리스워(Nareshwor)지역 : 270가구(가옥균열 및 붕괴80% 이상)

c. 탈리(Thali) 마을 : 50가구 (가옥 100%붕괴, 1명 매몰)

d. 고레다라(Gore dara) 마을 : 75 가구 (가옥 균열, 붕괴 100%)

* 구호 활동 내용

a. 진료 ; 1,276명 (수술 6명)

b. 구호 품 보급 : 식량 (1,070명분), 담요 (1,070개),

천막 (330장), 임시주택용 자재(574장, 합석)

c. 예산 : 1억원

- 의의 : 지진 피해로 인해 낙심한 주민들에게 의료활동을 펼치고 구호품을 나눠주면서 위로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다. 이로인해 구호활동을 펼쳤던 지역의 가쿠은혜교회는 성도가 30여 명이 늘었고, 고레다라 마을도 30여명 모이는 교회에서 60여명으로 증가했다. 주택건설과 학교 건축 등 조기복구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레다라 마을은 교인 숫자가 현재 90여명까지 늘었다. 이처럼 재난발생 상황에서 구호팀과 의료팀이 연합으로 긴급구호 현장을 찾아가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진료활동과 구호품을 나눠주는 등 체계적인 사역을 펼쳐감으로써 구호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구호활동으로 알차게 꾸며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낙심한 주민들 마음을 위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심겨주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기도를 받기 위해 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의료선교 및 교회의 보건의료 사업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1

박영태 교수

메모장

"의료선교 및 교회의 보건의료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료선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박에스더 교수(대구대학교)

한 지역 내에서의 의료선교 및 교회의 보건의료 사업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금일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병순 장로님의 교회인 온누리 교회가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온누리 교회의 사회적 선교 접근법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 및 최근에는 네팔에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필자도 다수 의료선교를 다니면서 의료선교를 통해 먼저는 복음이 그 땅에 흘러 들어 스며들고 더 나아가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도 종종 목격해 왔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메인 발표에 이은 지정 토론에서 필자는 의료선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긍정적 영향: 의료선교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복음전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신음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의료선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의료 행위를 하는 동안 그들의 신체적 아픔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아픔까지도 만져줄 수 있어 이 과정 중 지역주민들은 의료팀에게 감동하게 된다. 또한, 치료를 받아본 주민들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이는 건강행위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엔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도 종종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의료선교는 궁극적으로 복음이 그 지역에 흘러가게 하는 데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거룩한 도구 중 하나로 '의료행위'가 사용되는 것이다.

부정적 영향: 그러나 의료선교의 부정적인 측면도 이제는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의료선교의 부정적 영향을 파송된 선교 팀과 선교지 측 양면에서 고려해 보겠다. 우선 파송된 선교팀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지인을 돕다 보면 이것이 '나이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혼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의술 전달 행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간구와 아버지를 바램'에 소홀해지기 쉽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료팀이 아니어도 그들을 낮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결국은 그 분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현지인들은 의료팀의 방문을 반긴다. 왜냐하면 의료선교가 필요한 대부분의 지역은 도서지역이라 제대로 된 클리닉 하나가 없는 곳이 많기에 선교팀이 들어오는 때가 곧 클리닉이 서는 시기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약들과 치료까지 단번에 챙기려는 움직임으로 매우 부산하다. 그들은 잉여 약품을 챙기기 위해 필요하다면 온 가족을 동원하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증상들을 나열하기도 한다. 의료선교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는커녕 현지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둔갑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의료선교 현장에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까 깊이 고민해 본적이 많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오늘 더 깊이 청중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 이에, 토론 제목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혹시 여러분들 중 위와 비슷한 ‘의료선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주십시오

둘째,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나눠주십시오

셋째, 가장 이상적인 의료선교의 방법은 무엇일지 나눠주십시오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정종훈(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운영지침
- III.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후원자와 후원받는 환자 그리고 운영의 실제
- IV.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I. 들어가는 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 비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반은 죽여 길가에 팽개친다.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강도만난 자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로 급하게 가버린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웃으로 다가간다. 레오나드 그리피쓰(Leonard Griffith)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세 가지 삶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해설한다. 첫째는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강도의 철학이다. 강도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려고 한다. 남이 땀 흘려 거둔 결실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거두려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며 분풀이를 하려 한다. 둘째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두 종교지도자의 철학이다. 두 종교지도자는 강도만난 자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혹시 자신의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자기가 노력해서 소유한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셋째는 “나의 것은 당신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당신과 나누려고 한다.”는

사마리아인의 철학이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며 아낌없이 나누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맘으로 거둔 자신의 것이 그것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미리 준비하거나 한 것처럼 최선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한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의 응급실에는 매년 보호자나 후견인 없이 실려 오는 환자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는 긴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증환자들 역시 적지 않다. 그들 중증환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서 치료나 수술, 입원이나 약제처방 등의 치료 과정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그들은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과 삶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치료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심방과 기도의 기회를 사랑으로 제공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되어주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원목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는 강도만난 자처럼 무방비상태에서 아무런 연고 없이 그저 긴급한 도움만을 기다리는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치료 과정으로 이끌기 위한 열정의 결과였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3월부터인데, 그동안 도움을 받은 환자들은 120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의 경험을 성찰하고 공유함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와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해본다.

II.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운영지침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위한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지침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처음의 운영지침보다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후원대상과 후원항목이다. 후원대상은 “보호자 없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응급환자”(예; 독거 환자, 행려 의심 환자, 노숙 환자, 가족이 돌봄을 거부한 환자 등), “보호자가 있지만 환자를 돌볼 능력이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 그리고 “두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후원항목은 ‘의료비 후원’(본인 부담 발생 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이송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지원 등)과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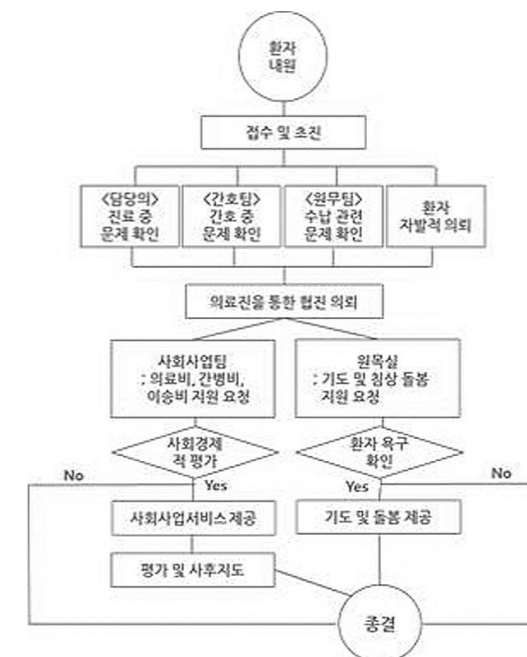
둘째는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다. 위원장은 연세의료원의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운영위원은 응급의학과장, 사회사업팀장, 간호수석부장, 입원원무팀장, 세브란스병원 원목으로 하고, 간사는 응급실 담당 사회사업

사가 맡는다. 운영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결위 시 업무 대체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프로젝트 집행 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후원기금의 집행 절차는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다.

셋째는 후원 기준 및 후원 범위이다. ‘의료비 후원’의 기준은 건강보험가입자는 최저 생계비 200%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확인으로, 앞의 두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한 환자(예; 행려 의심 환자, 신원 미상 환자 등)는 의료진의 협의진료의뢰 및 입원원무팀의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후원한다. 후원 범위는 소득과 자산 등의 평가 및 발생 의료비, 간병비, 이송비 등의 수준을 감안하여 차등으로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후원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논의 후 후원할 수 있다.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은 의료비 후원을 받는 환자 중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을 원하는 환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후원교회와 원목실이 협력하여 목회적 돌봄을 수행한다.

넷째는 프로젝트 기금의 운영 관리이다. 프로젝트 사업 기간은 당해년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의 기금 잔액은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사업별 담당 부서는 프로젝트 집행을 보고하는데, 사회사업팀은 의료비 후원 자료를 보고하고, 원목실은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 자료를 보고한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후원기금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연 1회 후원 교회 혹은 후원자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프로젝트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서류(후원기금 집행 현황 자료, 후원 대상 환자의 후원평가서 및 의결서, 경제적 상황 증빙 서류와 같은 후원 평가 근거 서류)를 보관하도록 한다.

끝으로 SOS 프로젝트의 업무 진행의 절차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Ⅲ.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후원자와 후원받는 환자 그리고 운영의 실제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원목실이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구상할 때에는, 후원자를 한국교회 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중대형교회로 정하고, 연 1,000 만원의 후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이름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가 된 것이다. 그러나 후원의 실제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200만원 후원한 교회 1개, 1,000 만원 후원한 교회 10개, 700 만원 후원한 교회 1개, 500 만원 후원한 교회 1개, 200만원 후원한 교회 1개, 500만원 후원한 개인 1인으로, 총액 1억 3,100 만원이었다. 2015년에는 1,200만원 후원한 교회 2개, 1,000 만원 후원한 교회 9개, 500 만원 후원한 교회 2개, 500만원 후원한 개인 1인으로, 총액 1억 2,900 만원이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5일 현재 1,000만원 후원한 교회 5개, 800만원 후원한 교회 2개, 1,000만원 후원한 개인 2인으로, 총액 7,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아직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운영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금의 외형적인 총액만 가지고 전체적인 추이를 비교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3년째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는 4개 교회에 지나지 않고, 후원을 중단한 교회와 새로 시작한 교회가 반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1년차에 후원한 14개 교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최초로 정착시킨 전임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인데, 2014년 9월 1일 후임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이 취임하자 5개의 교회들이 후원을 중단했고, 그래서 후임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은 후원을 중단한 교회들을 메꾸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해야만 했다. 한편 후임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은 1차년도 말에는 전체 후원금 가운데 1,000 만원을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배분했고, 2차년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1,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500만원을 배분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2,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후원받은 환자들의 현황을 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전체 102명(2014년 37명, 2015년 40명, 2016년 25명)이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체 16명(2014년 2명, 2015년 11명, 2016년 3명)이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전체 4명(2015년 3명, 2016년 1명)이었고, 세브란스병원 전체로는 122명의 환자들이 후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후원을 받은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미혼이든 이혼이든 싱글로 사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단절된 환자들이 많았다. 설사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지와 연결된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해당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비용을 지원해 줄 만한 형편에 있지를 않았다. 또한 일용 노동자로서 그날그날 일해서 먹고사는 환자들도 있었고, 정부생계비를 지원받아서 힘겹게 사는 환자들도 있었다. 주거지의 형태를 보면 고시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등이었고, 노숙자와 행려자도 있었다. 그리고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나 탈북자를 포함해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태일랜드 노동자의 부인, 강도를 만난 모로코인 등 외국인도 있었다. 후원받은 환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후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기여했다.

Ⅳ.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는 한국교회와 함께 출발한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그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 속한 임의의 교회들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위원장인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과 지인 관계에 있는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이고, 개인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역시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의 지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현재로서는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의 활동 범위와 열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원금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한계이다. 한국교회가 프로젝트의 위원장인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과 상관없이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자체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한편으로 연세의료원 원목실이 후원금의 기본을 1,000만원, 적어도 500만원의 규모로 후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연세의료원 원목실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수의 교회들만 확보해도 많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효율성이 있겠지만, 반대로 어느 한 교회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적은 액수의 교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각 교회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찌하기 어려운 고민스러운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 자체를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후원금이나 후원받는 환자들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 해야 하는데, 너무 홍보가 잘 되면 후원을 받기 위한 환자들이 넘쳐나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은 의도의 프로젝트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너무 쉬쉬하면 정작 후원의 혜택을 받아야 할 환자들을 놓칠 수 있고, 너무 홍보하면 후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몰려와 기금이 고갈되어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브란스병원의 경우에는 적정선의 환자들을 후원하고 있는 관계로 확보된 후원금을 다 소진하지 않고 오히려 이월하고 있지만, 오래지 않아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날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담겨 있는 사마리아인의 철학을 지닌 교회나 개인을 최대한 확보하고, 강도만난 사람처럼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후원하는 수고를 원목실은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이다.

모든 후원금의 운영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후원금의 공평무사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집행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실의 담당 의료인이나 원무팀의 직원이 응급환자들을 궁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환자들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사회사업팀으로 적합한 환자들을 1차적으로 연결해주어야 한다. 사회사업팀의 사회사업사는 환자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후원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들이 물질적인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해서 즉시 원목실로 통보해야 한다. 원목실의 교역자들은 질병의 치료와 전인치유를 구분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상담하며 기도로 후원해야 한다. 그리고 원목실과 사회사업팀은 서로 협력하여 후원금의 현황과 후원받은 환자들의 현황과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잘 작성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교회와 개인에게 전반기와 후반기 한 번씩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현황 보고모임을 개최함으로써 후원하는 교회와 개인들로 하여금 후원받은 환자들의 현황을 세세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후원에 대한 관심과 함께 후원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세의료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지난 131년 역사를 돌아보면, 선교사와 선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낌없는 기부가 확장되고 있다. 광혜원이 세워질 때 고종 황제와 민영익 대감의 보은의 기부가 있었다. 세브란스병원이 세워질 때 기도하며 기부를 결정했던 사업가 세브란스 장로의 거액의 기부가 있었다. 지금의 세브란스병원 본관이나 최근 개원한 연세암병원 역시 많은 내부 구성원들과 외부 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초석이 되었다. 131년 동안 이어온 그 많은 기부는 연세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에게는 사랑의 큰 빛이다. 언젠가 학생채플의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께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역시 세브란스다운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오래지 않아 약정 기부금을 보내주셨다. 이처럼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의료원과 병원의 모든 사안을 운영할 때, 기독교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새롭

게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첨부자료 1. 공문사례, 연세의료원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협조 요청의 건
- # 첨부자료 2.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설명서
- # 첨부자료 3.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협약서 사례
- # 첨부자료 4. 공문사례,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협약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 # 첨부자료 5.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운영지침

첨부자료 1.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광혜원·제중원 132년

수신자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담임목사님

(경유)

제 목 연세의료원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협조 요청의 건

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 연세의료원에서는 『한국 교회와 함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교회의 2016년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 교회와 함께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설명서 1부. 끝.

연세의료원 원목실장겸 교목실장

기안자 김상진

협조자

시행 연원목 -

(2016. 8. 10)

접수

-

(2016. . .)

우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전화 (02) 2228-1011 전송 (02) 312-5845

교목실장 정종훈

통제

/ www.yuhs.or.kr

/ theology@yuhs.ac / 공개

첨부자료 2.

【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1. 사업취지

1)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강도를 만나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2) 이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브란스병원을 찾아온 응급환자 중 보호자가 없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환자들 친구가 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과 한국 교회(혹은 개인기부자)가 함께 하는 후원사업이다.

2. 사업의 필요성

1)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는 매년 보호자 없이 홀로 버려진 600여 명의 응급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그 중 300여 명은 긴급한 중증환자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2) 이들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진료비를 전혀 마련할 수 없어, 치료/입원/수술/약재 등의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진료비의 지원과 더불어, 심방, 격려, 기도 등 목회적 돌봄이 절실하다.

3. 사업개요

1) 매년 후원금 1억 2,000만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호자 없이 홀로 버려진 300여 명의 응급환자를 후원하고자 한다.

2) 후원금은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교회(혹은 개인기부자)가 매년 500~1,000만원씩(또는 형편에 따라 약정) 기부하는 것으로 충당한다.

3) 세브란스병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급환자의 치료와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4. 사업개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교회(혹은 개인기부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

첨부자료 3.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협약서

인천제일교회와 연세의료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을 본받아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응급환자를 돌보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프로젝트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보호자 없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약내용

1. 인천제일교회는 2016년 지원금 1천만원을 의료원 구좌로 송금한다.
2.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당 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
3. 연세의료원 원목실은 해당 응급환자의 목회적 돌봄을 사랑으로 실행한다.

제 3조 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중단요청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사업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종료 5개월 전에 통지한다.

제 4조 협약의 해지 및 변경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을 중단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5조 사업수행 보고

1. 연세의료원은 매년 일정시기를 정하여, 사업보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2. 연세의료원은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록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 6조 기타 사항

1. 상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상의 업무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통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22일

인천제일교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54

담임목사 손신철

연세대학교 의료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도흠

첨부자료 4.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광혜원·제중원 132년

수신자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담임목사님

(경유)

제 목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협약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 연세의료원이 시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원계좌를 알려드리오니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26-083783-13-205 (예금주 : 연세의료원)

2. 후 원 금 : 500만원. 끝.

연세의료원 원목실장겸 교목실장 사인생략

기안자 김상진

협조자

시행 연원목 -

(2016. 8. 10)

접수

- (2016. . .)

우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www.yuhs.or.kr

전화 (02) 2228-1011 전송 (02) 312-5845

/ theology@yuhs.ac / 공개

교목실장 정종훈

통제

첨부자료 5.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운영지침

1. 후원 대상 및 후원 항목

가. 지원대상 : 보호자 없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응급환자

(예; 독거 환자, 행려 의심 환자, 노숙 환자, 가족이 돌봄을 거부한 환자 등)

나. 지원항목

1) 의료비 후원 : 본인 부담 발생 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이송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지원 등

2)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

2.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구성

직책	직책
위원장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운영위원	응급의학과장
	사회사업팀장
	간호수석부장
	입원원무팀장
	세브란스병원 원목
간사	응급실 담당 사회사업사

가. 운영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궐위 시 업무 대체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나.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2월, 5월, 8월, 11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운영위원장이 별도 개최한다.

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젝트 집행 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후원기금 집행 절차는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마.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다.

3. 후원 기준 및 후원 범위

가. 의료비 후원

1) 후원 기준

- 가) 건강보험가입자 ; 최저 생계비 200% 범위 내에서 합당한 자로 선정한다.
-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확인으로 같음한다.
- 다) 가)와 나)로 확인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한 환자(예; 행려 의심 환자, 신원 미상 환자 등)는 의료진의 협의 진료의뢰 및 입원원무팀의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후원 범위

- 가) 소득과 자산 등의 평가 및 발생 의료비, 간병비, 이송비 등의 수준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 나)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해야 할 경우 별도 논의한다.

나.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

- 1) 후원 대상 : 의료비 후원을 받는 환자 중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을 원하는 환자
- 2) 후원 내용 : 후원교회와 원목실이 협력하여 목회적 돌봄을 수행한다.

4. 업무 진행 절차

5. 프로젝트 기금 운영 관리

가. 프로젝트 사업 기간

- 1) 프로젝트 사업 기간은 당해 년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2) 해당 기간의 기금 잔액은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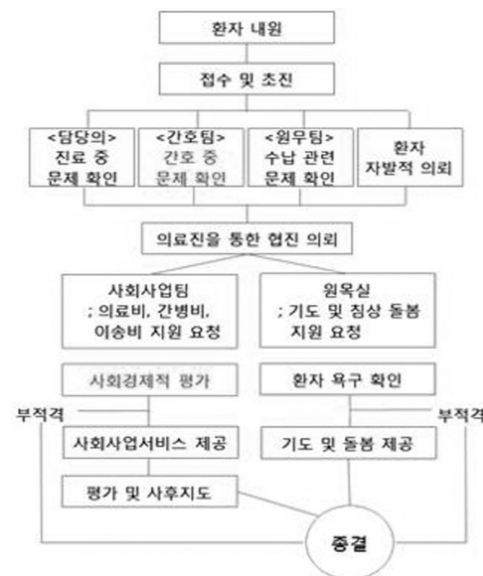
나. 프로젝트 집행 보고

- 1) 사업별 담당 부서
 - 사회사업팀 : 의료비 후원 자료 보고
 - 원목실 :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 자료 보고

- 2) 사회사업팀에서는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한다.
- 3) 후원기금 사용 현황에 대해 연 1회 후원 교회 혹은 후원자에게 보고한다.

다.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프로젝트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1) 후원기금 집행 현황 자료
- 2) 후원 대상 환자의 후원평가서 및 의결서
- 3) 후원 평가 근거 서류(경제적 상황 증빙 서류)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토론문

송효석 부장(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 의료사회복지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발제자의 원고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였다. 우리가 흔히 상위 5대 병원이라고 일컫는 주요 대형병원들은 사업의 명칭은 다르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우선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 재원의 출처는 다양한데 첫째, 병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둘째, 국가복지제도를 활용해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거나 셋째, 기부자가 병원에 기부한 병원발전 후원금을 활용하거나, 넷째 민간후원단체에 환자의 사연을 보내서 지원을 받는 방법 등이다.

응급실에서 취약계층(독거환자, 행려 의심환자, 노숙 환자, 가족이 돌봄을 거부한 환자 등)을 돕는 재원 또한 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응급실 내원 환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복지제도를 활용하거나 민간후원기관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재원은 병원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기금 또는 후원자로부터 확보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는 응급실 내원 취약환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보호자 없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응급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교회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제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프로젝트 책임자의 인맥에 따라 모금의 규모가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기부하는 교회에서도 기부로 인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설득함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교회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원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심리 정서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한 환자의 스토리를 담은 스토리 북을 전달하고 교인들의 질병 예방에 유익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병원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중 최고의 사회공헌활동은 병원이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즉 국민의 질병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서 질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개인이 지출하는 치료비용과 건강회복을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다. 모금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서 재원의 투명한 사용과 후원자에게 사업결과에 정기적인 피드백이다. SOS 프로젝트는 특히 교회의 후원금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교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후원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사업의 경과 및 결과를 잘 피드백해주는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감이 생길 것이다.

셋째,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다. 여러 직종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원활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응급실에 사회복지사를 의무고용 해야 한다는 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또는 대만 등은 응급실 전담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응급실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환자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들을 잘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응급실에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응급실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사업범위의 확장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지만 주 대상인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응급실의 의료진이므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업 범위에 포함을 시켰으면 한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심각한 심리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진으로부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응급실에서의 소진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의 기금을 활용해서 응급실 의료진 소진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응급실 내원환자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병원, 후원자, 환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회가 건강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확대이다.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해 노숙자 및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환자 등이 점점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건강안전망 체계가 충분히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기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를 범기독교 차원에서 실시한다면 취약계층의 건강 지킴이 역할과 아울러 새로운 전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범 기독교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인해 공동체 역사를 구축함은 물론 교회들 간에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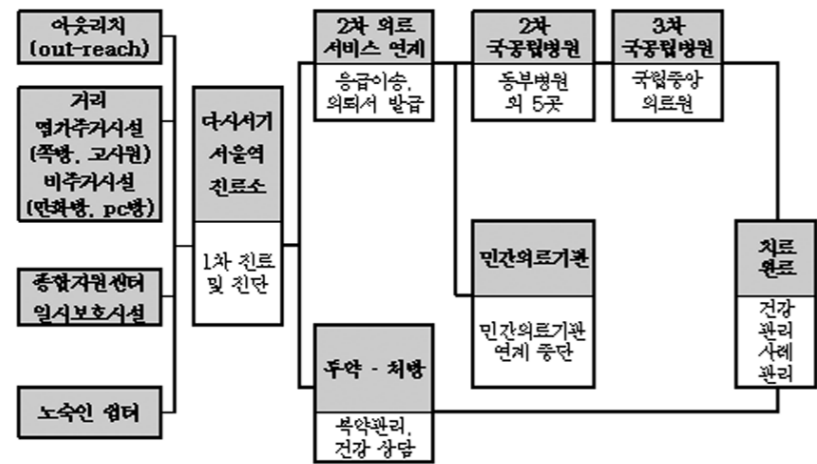
노숙인 진료소에서 바라본 선한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여재훈 신부(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 들어가는 말

서울역진료소는 거리노숙인과 노숙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한 노숙인 진료소입니다. 노숙이라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놓인 만큼 이 분들의 건강상태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응급적인 상황은 물론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호흡기질환, 당뇨병, 근육통, 안과질환, 치과,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이 진료소를 이용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1,026명이 진료소를 이용하였고 9,993명이 진료소를 통해 2,3차 국공립병원에 의뢰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20여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과진료, 안경지원, 치과진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입원한 이들의 병원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회복하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동안 지낼 수 있는 숙식 제공과 함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진료소는 2002년 4월에 개소하여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역 파출소 앞의 옛 동부아동상당소 좁은 공간과 서울역광장의 컨테이너박스에서 진료를 하다가 2009년 6월에는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아 건물 내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발전을 위한 대단한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료소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현재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정식(?) 건물 안에서 진료를 본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좀 쉬고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길인데도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위해 투쟁, 열정, 노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선후배, 동료들의 헌신이 깊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합니다. 당장의 직면하고 있는 노숙인, 또한 노숙인 의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만 해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2. 다시서기서울역 진료소의 활동



다시서기서울역 진료소의 진료대상은 거리노숙인, 노숙인 시설 이용자, 영가주거시설 거주자, 비주거시설 거주자 등 흔히 말하는 노숙인이 주 대상자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까지이며, 진료인력으로는 공중보건의 2명과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일반내과 중심이며 1차 진료를 통해 자체처방 및 진단검사(혈액, 소변, 심전도 등), 주사제 투여 등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하여 2,3차 국공립병원으로 연계합니다. 또한 119 및 응급이송체제와 협조하여 위급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거리노숙인들에게 팩스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업무도 진행합니다.

월, 금은 야간진료로 치과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보철 및 틀니 지원이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과 질환을 앓는 환자 중 안경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 현장에서 전문 의료진과 함께 x-ray를 현장결핵검진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들의 혈압, 혈당, HIV 등 기초 건강검진뿐 아니라 결핵소견자는 병원이송 및 치료 연계를 진행합니다.

3. 노숙인 현장에서 바라본 ‘선한 사마리아인 sos프로젝트’ (이후 선한 프로젝트)

노숙인 현장에는 다양한 결핍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들 일수록 건강에 취약점이 많습니다. 때문에 제때 치료시기를 놓친 많은 가난한 이들이 중증 질환이나 응급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치료적 접근과 접촉점이 더 많아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그들을 치료할 중대형 병원의 부재로 지방의 노숙인들이 중병에 걸릴 경우 서울 시설을 인원을 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숙인, 행려자, 수급자, 주거가 일정치 못한 유사주거시설 거주자 및 그 사각지대에 거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우리가 짜놓은

안전망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안타까운 이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여 연대 의료원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는 의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가난한 이들, 또 그 속에서도 사각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것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숙인들에 대한 무료진료와 상급 대형병원의 무료치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절차를 거쳐 노숙인으로 분류되신다면 구지 연대의료원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치료와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중복 치료가 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에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노숙인 진료체계안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사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숙인들과 의료보험이 말소되지 않은 노숙인들, 더불어 빈곤층으로 수급을 지원받으나 병원비중 실비 부담이 어려운 이들은 노숙인 의료체계 안에서도 도움수 없는 대상층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빈곤의료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및 서비스가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그에게 더 알맞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함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면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할수 있을 듯 합니다.

둘째, 후원처 개발을 위한 홍보의 활성화와 안정적 후원회원 모집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합니다. 필자가 약 4년전 이 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NCCK와 함께 만들려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NCCK 홈리스 대책위 간사와 함께 1교회 1노숙인 결연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노숙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적극적으로는 급식을 소극적으로는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풍돈을 지급함으로써 교회는 체면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은 의미없는 실속을 챙기는 일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그당시 기획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 인프라 (교회내 속한 의사, 기업인, 상담가, 기도자, 목회자 등) 들이 동원되어 한사람의 노숙인을 케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10교회를 선택,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제공을 통해 그들을 온전히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을 지원하는 10교회를 찾지 못하여 결국 무산된바 있습니다.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외부 교회 편당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단일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성과물이 재정을 투입하는 교회들의 동기부여에 다소 충족되지 않아 지속적이지 않아 보인다 할수 있습니다. ‘노숙인’ 이라 불리우는 대상들이 한국에서 가지는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노숙인들은 ‘게으르고’, ‘술취해 있고’, ‘비도덕적이며’,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손길에 매우 인색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원받는 이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변화의 성과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더라도 병원에서의 회복과 재생을 수시로 소개하여 서로에게 회복과 지원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빈 포도주 향아리는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셋째,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지원 이전에 정서적 지원입니다. 거리에 수많은 노숙인들이나 행려자들이 수백명씩 죽어갑니다. 각종 사고와 더불어 각종 질환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어갑니다. 상당수의 거리의

이들이 자신의 각종 질환과 병을 알고 있으나 무료 병원입원을 거부하며 거리에서 쓸쓸이 죽어갑니다. 거부 이유중 가장 많은 이유가 병원에서의 냉대입니다. 모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숙인 이라는 신분 아닌 신분으로 병원에서는 일반인과 다른 대접을 받기 일쑤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깊은 상처도 의료적 접근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때문에 입원치료 받는 이들에 대한 영적 지지와 기도, 배려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경감시켜 퇴원후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연대 의료원의 '선한 프로젝트'의 '기도 및 침상 돌봄 후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병치료에 꼭 병행되어야 할 후원입니다. 교회와 원목실이 함께 돌보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치료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입원 과정을 응원 및 후원 함으로 치료받는 자가 정서적 안정과 종교적 배려를 받게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여서 삶을 포기했던 이에게 우리라는 이유와 살아갈 동기를 제공함으로 치료가 극대화되고 이후 삶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얻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4.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일반 의료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오고 계셨다는 것을 이번 발제물을 통해 알게 되어 매우 놀랐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의료가 실지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매우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리 병원이 교회와 연합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행위에 대한 돌아오지 않는 피드백, 끊임없이 소진만 되어가는 예산들 등, 누군가의 열정과 그의 열정을 지지하는 신앙인들의 공명이 없었다면 결코 만들어질수 없는 결과 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명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며 이로인해 참 많은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으리라 봅니다. 루가복음 5장19절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은 친구들처럼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께 내려준 친구로서의 행위가 바로 오늘 연세 의료원의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료 행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우리사회의 의료로 인한 예수살이가 더 커져가기 기대해 봅니다.